



만개한 해바라기꽃밭에서 추억 만들기 5일 관광객들이 제주시 회천동의 한 농장에 활짝 핀 해바라기꽃밭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경기지표 3개월째 내리막길

지난 2월부터 선행·동행종합지수 동반 하락세
 관광·서비스업 최악... 광공업·농수축은 호전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가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과 서비스업 경기지수는 최악의 상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일 제주도가 집계한 '경기종합지수'에 따르면 지난 4월 선행종합지수(2015=100)는 111.5(-2.0, 이하 잠정치 및 전월비 하락폭 생략)로 앞선 3월 113.8(-1.4)과 2월 115.4(-0.1)에 비해 낮다. 1월 115.5(0.9)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로 지역경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경기종합지수는 국가 또는 지역 내 경제 전체의 경기동향을 쉽게 파악

하고 예측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농수축산물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건축허가면적 등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가공·종합해 지수형태로 나타낸다.

제주지역 동행종합지수(2015=100)도 선행종합지수와 같이 3개월째 내리막 추세다. 지난 1월 112.7을 기록한데 이어 2월 111.8(-0.8), 3월 109.4(-2.1), 4월 106.2(-2.9) 등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른 선행·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에 비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올해 제주지역의 전국동행지수는

1월 100.2, 2월 99.8, 3월 98.6, 4월 97.3이다. 지난 1월을 제외하고는 제주경제 상황이 전국 대비, 2015년 이전보다 못하다.

선행종합지수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월 64.6, 2월 63.3, 3월 48.9, 4월 28.1로 크게 줄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107.0, 2월 106.7, 3월 106.2, 4월 114.4로 최근 오름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2.5, 2월 94.3, 3월 71.8, 4월 79.1로 위축된 상태다. 도내 건축허가면적은 1월 15만9000㎡, 2월 13만100㎡, 3월 22만1100㎡, 4월 11만6100㎡를 기록 중이다.

동행종합지수에서도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적 등의 사유로 1월 39만1900명, 2월 38만5400명, 3월 37만3200명, 4월 37만1300

명으로 매월 줄고 있다. 관광객수도 1월 135만3066명, 2월 73만133명, 3월 51만5824명, 4월 51만2214명으로 많게는 최대 월평균 대비 1/3수준까지 떨어졌다. 제주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관광·서비스업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비제조업 업황)는 1월 66.0, 2월 51.0, 3월 33.3, 4월 27.8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만 광공업생산지수는 1월 89.3, 2월 102.5, 3월 101.7, 4월 114.6으로 호전세다. 농수축산물 생산지수도 1월 97.0, 2월 99.7, 3월 109.4, 4월 119.5로 비교적 양호하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기준치(100)에 못 미치지만 1월 97.6, 2월 85.8, 3월 89.8, 4월 92.5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발굴·도입

도 농기원, 오는 2023년까지
 제주지역 재배 가능성 연구
 농가 재배 면적 꾸준히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아열대과수 작목을 발굴 도입하고 제주지역 재배 가능성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로 이미 망고, 바나나 등 다양한 아열대과수의 국내 주산지로서 농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아열대과수인 망고, 용과, 구아바, 바나나, 패션프루트, 레드베이베리, 아메모야 등 재배 면적은 2011년 89농가 36ha에서 2018년 113농가 56.6ha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열대과수는 대부분 시설 재배로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작을 하기 때문에 무가온 재배 등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작물 발굴이 필요

하다. 앞서 2015년 농기원은 고당계 리치와 무가온 재배 레드베이베리에 대한 재배 가능성을 검토해 유망 과종으로 선발, 품질향상 기술 개발 등 재배법을 확립한 바 있다.

또한, 농기원은 2018년부터 바바코, 용안, 스타애플, 황색용과, 저온성 아보카도 등 5종을 도입해 과종별 생육 및 과실 특성과 재배 가능성을 조사·검토, 제주지역에 맞는 유망 과종을 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원은 대과이면서 고당계인 용과(대홍), 신맛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신비과인 미라클프루트, 신제품인 고당계 파인애플 묘종을 바이러스프리 플라스크묘로 대만에서 새롭게 도입해 제주지역에서의 재배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올해 1~6월 평균기온 14.2℃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높았다

2002년과 함께 최고 기록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기록한 제주 지역 평균기온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제주 평균기온은 14.2℃로 2002년과 함께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제주에는 올해 유례 없는 고온 현상을 보였다.

올해 1월 평균기온은 9.2℃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2월·3월 평균 기온은 9.4℃와 11.9℃로 역대 3·2위에 해당했다.

또 지난 6월 평균 기온은 역대 5위

인 22.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0.8℃ 높았다.

기상청은 "평균기온 상승에 가장 많은 1~3월, 겨울철에 시베리아 부근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돼 찬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가장 최근인 6월에는 그달 초부터 대기 상·하층에 더운 공기가 자리 잡은데 이어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된 영향으로 기온이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 장마는 6월10일 시작됐으며 이는 2011년과 함께 가장 이른 기록으로 평년보다는 9-10일 가량 빨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 지원방안 추진

제주도,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오는 9월 완료

제주지역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연구원서 '고령농 농부병

진료비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이다. 농업인의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 유형 및 발병률 등을 검토하고, 지원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농업인 복지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은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이다.

이 용역은 당초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고령 여성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사업을 기

반으로 대상을 확대(전체 농업인)해 추진되고 있다.

용역에서는 농부병 질환 현황 및 진료비 지원 대상 규모 파악을 비롯해 설문조사 분석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농부병 관련 지원사례 조사가 진행된다. 또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 연계방안과 병·의원,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과 업무체계 연계 방안, 보험제도 가능성도 검토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임

제주시장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겸허한 자세와 소통으로 행복한 제주시를 위해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동 우

김병리민 일동